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한 영농 4-H조직의 활성화 방안

유 덕 기*

A Study on the Activation of 4-H Farming Organization for Development of Environmental-Friendly Agriculture

Yoo, Duck-Ki

In this article the author provided a brief introduction to the function and activation of 4-H farming organization. The strategies developed to improve the environmental-friendly Agriculture are as following : the efficiency cooperatives of 4-H farming organization, invitation of the upbringing plan of organization leader for promotion of the pilot region project of environmental-friendly Agriculture connected with green tourism, the establishment of reasonable management plan and strategies. In conclusion, there must be strategic measures to increase the income of environmental-friendly farmers. All of this information could be useful for the further development of the strategy for environmental-friendly Agriculture in organization and management.

Key words : 4-H farming organization, efficiency cooperatives, green tourism, upbringing plan, reasonable management plan and strategies

I. 서 론

지난 2000년 이후 친환경농업이 21세기 대안농업으로 급부상하면서 민간주도의 친환경 농업에서 민·정·학·관의 관심이 고조되어 왔으며 그 역할과 기능이 보다 다양화, 활성화되고 있다.

2005년 정부의 친환경농업정책을 보면 친환경농업자재 지원 확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대상 확대, 친환경농업 기반확충 및 실천농가 지원책의 일환으로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사업의 실천능력별 지원확대와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한 광역 친환경농업단지조성 추진, 천

* 동국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적해충방제사업과 친환경농산물 유통 활성화 및 소비촉진,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 폐 영농자재 수거 및 재활용 지원책 등으로 계획되어 있다. 특히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은 관행농업에서 탈피, 4대 강유역과 수변지역 및 특구 등 환경민감지역을 중심으로 축산과정종이 연계한 광역단위 자연순환형 친환경농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5년 사업모형을 개발, 2006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한 후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러한 광역단위 정책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이며 지역단위의 능동적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사업의 성공과 지속성을 보장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농촌내부에는 경제적인 문제이외에도 농촌의 구조적인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젊은 층의 이농에 따른 농촌후계자의 확보문제는 심각한 실정에 있다고 하겠다. 특히 광역단위 친환경농업육성사업을 위한 마을조직과 그 조직 리더의 육성은 지역단위 친환경농업정책의 성공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농촌의 자연부락을 자연순환형 친환경농업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정은 주민참여이다. 이제까지 농촌지역에 대한 투자와 지원은 주민의 요구사항이나 지역실정을 소외한 채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업활동과 내용의 현실성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추진의 실효성도 확보되지 않았다. 따라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마을자원과 실정에 적합하게 계획하고 그 계획을 지속적으로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주민 자치력 확보와 조직력을 활용하는 것이 절대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겠다.

지역의 특성을 바탕으로 지역 내 산업간 유기적 관련성을 높이며 지역자원의 특성을 살리고 자원의 최대한 이용을 전제로 한 지역농업으로의 지방자치제의 기능강화와 자율성의 강화에 의한 성공적인 추진사례도 등장하고 있으나 대부분 조직과 리더의 취약으로 효과적인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이농 및 농촌고령화로 인한 조직파괴와 리더의 감소는 심각한 현상이라고 하겠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배경과 필요성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갖는다. 즉, 오늘날 농업, 농촌발전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지역 단위의 조직 중에서 비교적 활성잠재력이 높은 영농조직을 활용하여 잠재된 농촌의 어메니티(amenity) 자원을 활성화하고 마을단위의 자연순환형 환경친화적 특화농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소득향상을 추구하며 그린투어와 연계된 농촌마을로 개발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본 연구는 영농 4-H조직의 역할증대와 활성화를 통하여 영농4-H조직을 친환경농업의 선도적 영농조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농업환경변화와 영농 4H조직의 활동과 문제점

영농 4H회는 1980년대 중반 무렵까지는 후계농업인력의 80%를 차지하는 등 농업·농촌발전의 원동력으로서 그 역할이 증대되어 왔으나,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회원수가 16,000여명으로 감소하는 등 양적인 측면에서의 조직 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양적인 측면에서의 위축은 필연적으로 조직 활동의 위축을 초래하게 되어 이에 대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대응책 및 활성화 방안의 모색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조직의 양적, 질적 감소에 대한 원인은 농업을 둘러싼 국내·외의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는데 그 직접적인 이유가 있다. 국외적으로는 WTO 개방 압력의 확대, 중국의 WTO 가입, 한·칠레 FTA협상 타결, 그리고 또 다른 FTA의 움직임 등으로 인한 농업부분의 위축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국내적으로는 농업부문의 위축으로 인해 영농생산인력이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고, 특히 영농후계자로서 농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야할 청장년층의 감소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 니즈의 변화로 농산물 소비시장의 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나 농업생산 및 농민들은 이러한 생산 및 유통·소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영농 4H회에 있어서도 현재와 같은 작목반 중심의 활동이나 영농회원의 영농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이나 봉사활동, 취미활동, 환경보존 활동으로서는 오늘날의 심각한 농업위기의 상황에서 탈피하기에는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향후 영농 4H회의 역할을 증대시키고 시장경제와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경쟁력을 가진 영농조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별회원의 경영능력과 성장잠재력을 활성화하고, 경제·사회적 변화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과거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자』라는 정신적인 측면에서의 이념이 강조되는 것과는 달리, 현재에는 유통 및 마케팅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시장경쟁력을 지닌 조직체의 육성과 마케팅조직의 중심체적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단위의 전문조직경영자 육성을 위한 필요성과 이에 부응하는 새로운 역할변화의 재정립이 제기되고 있다.

영농 4H회 조직 활동의 문제점을 보면,

- 영농환경변화와 회원들의 인식변화에 따른 영농 4H회 역할변화 모색 부족
 - 70년대의 경우 정신적인 이념강조와 개인의 능력개발이라는 측면이 당시의 농촌교육 환경과 농업환경이라는 측면에서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었으나, 현재는 영농 4H활동 이외에도 학교 또는 사회에서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있음.
 - 전통적인 이념과 교육내용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과거의 활동프로그램을 답습하고 있

는 현실임.

- 70년대의 회원들과 현재 회원들 간에는 기존의 영농 4H활동영역 이외에는 공통분모가 거의 존재하지 않고 있음.
- 현재 회원들의 관심사가 과거의 증산중심의 사고에서 멀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문화, 교육, 경영적인 측면에서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개발이 결여됨.
- 특히 영농회원들이 직접적·실천적으로 필요로 하는 유통 및 마케팅교육, 조직경영, 선진지 벤치마킹 등 시장경제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은 극히 취약한 실정임.
- 활동 프로그램이 정책적으로 하달되는 지도방식으로 인하여 지역특성과 회원욕구에 적합한 프로그램수행, 자율적인 활동과 교육 및 지도가 빈약한 실정임.
- 회원의 활동이 친목과 교육중심의 단순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음.
 - 단순한 친목중심의 프로그램과 교육내용만으로는 지속적이고 안정된 영농과 회원의 잠재된 영농활동의 활성화에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농 4H회의 잠재적 회원 및 활동이 매우 빈약한 다수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와 조직경영의 제도권으로 유입하는 데에는 한계가 나타날 수밖에 없음.
- 영농 4H회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존의 조직과의 연계성 미비
 - 학생 4H회와의 빈약한 연계성 이외에도 영농 4H출신자 또는 기성세대의 조직과도 연계 및 교류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 또한 영농 4H회원이 영농후계자, 농업경영인후계자 등 다수 조직에 가입하고 있어도, 그것이 조직 간의 연계강화나 교류의 활성화로 발휘하지 못하고 개별적인 활동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음.
- 영농 4H회에 대한 비중 및 관심 감소
 - 4H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 활동의 무게중심이 영농 4H회에서 학생 4H 활동으로 이동하고 있음. 이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이라는 4H 사업정책의 기초와 역할에 기인하는 것이지만, 영농 4H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상인원이 양적으로 풍부하고, 학생 4H사업이 영농 4H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집단적이고 용이하다는 점이 작용하고 있음.
 - 그러나 오늘날 농촌지역에서 영농 4H회 역할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감안 할 때, 영농 4H활동이 학생 4H활동에 비해 부차적 사업으로 소외된다면 장기적으로 농업 농촌경제의 성장잠재력에 큰 타격이 될 것임.

영농4H회의 발전과제를 보면,

- 영농 4H조직의 활성화를 통하여 지도 교육 및 봉사중심의 활동에서 소수정예의 전문

농업경영인으로 육성, 농업·농촌지역경제의 자발적이고 조직적인 운영으로 시장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임.

- 모든 젊은 영농회원들이 절실하게 요구하고 공감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조직운영과 그 활동결과 및 성과가 회원들에게 공평하게 배분될 수 있는 현실적 조직 활동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됨.
- 영농 4H 활동에 있어서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하는 조직운영사업의 지원 육성이 요구됨.
- 교육 프로그램, 조직화 사업, 기타 4H활동 등에서 지역의 여건과 회원들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 모색
- 사업 진행과정, 교육프로그램 진행, 각종 행사 등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책임의식을 가지고 조직운영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도와 교육 및 훈련이 요구됨.
- 중앙단위 차원에서는, 기존 농촌내의 각종 농민조직과의 교류, 농업계인력확보와 같은 정부정책, 교육·홍보·지원·지도사업 중심의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며, 지역단위조직이 친환경농업활동을 주체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표준모델을 개발, 지원·육성하여야 할 것임.

결과적으로 영농조직의 중추적 활동을 통하여 스스로 회원으로서의 역할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조직기반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경제 활동의 조직 및 활동의 활성화를 통하여 영농 4H회의 이념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그 속에서 지역단위의 동질감과 연대감을 가지고 친환경농업·농촌을 선도하는 전문영농조직으로 육성, 발전하게 된다면 영농 4H회원의 증가와 함께 개별회원농가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경쟁력 있는 시장경제 활동이 더욱 발전 지향적으로 보장될 것이다.

Ⅲ. 영농 4-H회의 운영과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

전국 영농 4H회 시·군 임원들을 대상으로 총 504개의 설문지를 발송하여 최종 27명이 응답해 왔다. 이는 전체의 약 5.4%로서 설문조사 응답율이 일반적으로 20% 정도인 것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치이다. 이러한 현상은 영농 4H 회원들의 조직 활동이 매우 소극적인 활동에 그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1. 영농 4-H 회원의 일반 현황 및 특성

성별로는 남자가 약 81.5%인 22명, 여자가 약 18.5%인 5명으로서 남자의 비율이 거의 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연령별로는 24~26명이 55.6%인 15명, 그 다음으로 27~29세가 25.9%인 7명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 성별·연령별 현황

(단위 : 명, %)

구 분	성 별			연 령 별						
	소계	남	여	소계	16~18	19~20	21~23	24~26	27~29	30세 이상
응답수 (비중)	27 (100.0)	22 (81.5)	5 (18.5)	27 (100.0)	1 (3.7)	1 (3.7)	2 (7.4)	15 (55.6)	7 (25.9)	1 (3.7)

이에 비해 16~23세 이하의 수는 4명으로 14.8% 정도이다. 이는 현재 영농 4H 회원의 연령대가 20대 후반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향후 영농 4H회의 지속적인 활동에 있어서 후계인력충원이 되어야 할 20대 초반 회원의 상대적 부족으로 나타나거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앞으로 영농 4H 회원의 양적 감소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표 2〉 학력별 현황

(단위 : 명, %)

구 분	소계	중졸	고졸	대 졸					
				소계	재학	농업 전문학교	농과 대학	기타 학과	대학원
응답수 (비중)	27 (100.0)	1 (3.7)	12 (44.4)	14 (51.9)	2 (7.4)	3 (11.1)	6 (22.2)	2 (7.4)	1 (3.7)

주 : 재학 또는 중퇴의 경우에는 최종 학력에 포함.

학력별로는 대학재학 이상이 51.9%, 고졸이 44.4%로 나타나고 있어 전문경영인으로서의 육성 잠재력은 크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농과대학 및 농업전문학교 등 농업계 대학 출신이 11명으로, 대학재학 이상 학력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표 3〉 연평균 소득

(단위 : 명, %)

구 분	소 계	1,000만원 이하	1,000~ 2,000	2,000~ 3,000	3,000~ 4,000	4,000~ 5,000	5,000만원~ 1억원	1억원 이상	무응답
응답수 (비중)	27 (100.0)	2 (7.4)	6 (22.3)	5 (18.5)	2 (7.4)	5 (18.5)	4 (14.8)	1 (3.7)	2 (7.4)

연평균 소득은 1,000~2,000만원이 22.3%, 2,000~3,000만원과 4,000~5,000만원이 각 18.5%, 5,000~1억원이 14.8% 등의 순으로 나타나 영농4H 회원의 농가소득 수준으로서는 예상 외로 낮은 소득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 4〉 조사대상농가의 경영규모

1) 농지별·규모별 경작농가 수

구 분	계	1.0ha 미만	1.0~2.0ha	2.0~3.0ha	3.0~4.0ha	4.0~5.0ha	5.0ha 이상
논	13	8	3		2		
밭	18	10	1	2	2	1	2
과수원	8	3	4			1	
시설재배	3	2	1				

주 : 1) 복수응답, 2) 무응답 4농가

2) 축종별·규모별 가축사육농가 수

구 분	10두 미만	10~50	50~100	100~500	500~1,000	1,000~2,000	2,000두 이상
소	3	1	1	1			
돼지		1		2			
닭		1					1 (20만수)
기타	2						

주 : 1) 기타의 경우는 개와 염소를 사육하는 농가임. 2) 무응답 4농가

경지규모에서는 경종농업의 경우 2ha 미만의 영세한 농가가 거의 대부분이며, 미작을 공통적으로 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전작중심의 영농이 이루어지고 있다.

조사농가 중 축산전업농가 3농가와 경종중심의 축산농가 4호로 총 7농가(26%)가 축산경영에 종사하고 있어 경종에 비해 매우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영농 4H 회원이 자본 및 노동집약적인 축산경영으로의 전환을 위한 충분한 자본 및 기술축적이 어려운 세대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 4-H활동 현황

학생 4-H 활동경력은 1~3년이 전체의 81.5%인 22명이고, 그 중 고등 학교시절 활동한 비율이 15명으로 전체의 55.6%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비해 영농 4H 활동경력은 4~6년이 37.0%인 10명, 7~10년이 33.3%인 9명, 2~3년이 22.2%인 6명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학생 4H 활동에 비해 상당히 장기간동안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학생 4H 회원에 비해 영농 4H 회원이 4H 이념과 활동에 장기간 역할중심적인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 학생 4-H활동 경력

(단위 : 명, %)

구 분	1년 이하	1~3년	3~5년	5~7년
초	-	-	1	-
중	-	1	-	-
고	-	15	-	-
대	1	6	2	1
계 (비중)	1 (3.7)	22 (81.5)	3 (11.1)	1 (3.7)

주 : 1) 복수응답, 2) 무응답 7농가

〈표 6〉 영농 4-H활동 경력

(단위 : 명, %)

구 분	계	1년 미만	2~3년	4~6년	7~10년
응답수 (비중)	27 (100.0)	1 (3.7)	6 (22.2)	10 (37)	9 (33.3)

주 : 무응답 1농가

영농활동 교육 및 활동 참가현황에서는 27명의 회원 모두 100%의 참여 실적을 보이고 있다. 다만 참가횟수를 표시한 응답자의 경우만을 살펴보면, 2001~2003년 사이 영농 4H 교육 및 활동에 최소한 평균 8차례 이상 지속적으로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7〉 영농 4-H 교육 및 활동 참가여부

(단위 : 명, %)

구 분	계	있 다	없 다
응답수 (비중)	27 (100.0)	27 (100.0)	- (0.0)

연도별 평균 참가 횟수를 살펴보면, 2000년 7.5회, 2001년 8.9회, 2002년 8.5회, 2003년 8.4회 등으로 나타나고 있고, 2000~2003년 사이의 평균 참가횟수는 8.4회에 이르고 있다.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야영교육 및 과제교육, 경진대회, 선진지 견학, 정보이용 교육, 유통교육, 지도력 배양교육 및 연수, 문화탐방, 4-H 회원입원 교육, 4-H 청소년의 달 행사, 4-H 수련회, 전통문화 체험활동, 4-H 회장단 연찬교육 등 매우 다양한 범위의 교육 및 연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및 연수시행기관으로는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청, 한국 4H본부, 중앙 4-H 연합회, 도 4-H 연합회 등이며 거의 대부분은 농촌진흥청 및 산하 기관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전통적인 4-H 교육도 중요한 교육의 일부이지만, 농업환경 변화라는 측면과 영농 4-H 회원의 실질적인 참가 유도 및 영농 4-H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유통 및 마케팅 교육과 같이 회원들의 소득과 영농활동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현장교육을 확대·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농협의 연합마케팅사업과 같이 유통 및 마케팅활동의 조직적 규모화를 통해 농가소득 제고와 영농활동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업과 사업주체 기관과의 유대관계를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표 8〉 영농활동 교육 및 참가현황

(단위 : 명, %)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0~2003년
참여회원수	12	17	19	16	64
참여횟수	90	151	159	136	536
평균참여횟수	7.5	8.9	8.4	8.5	8.4

영농 4H교육 및 활동에 대한 평가에서는 전체의 42.3%가 「보통」이라고 응답하고 있고, 23.1%가 「매우 만족」으로 응답하고 있으며, 「만족」과 「불만족」이 각각 15.4%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적어도 약 80% 정도의 회원이 보통 이상의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있으나, 실제 평가에 대한 이유를 살펴보면 「보통」이라고 응답한 응답자의 대부분이 부정적인 측면에서 평가를 내리고 있어 실제 만족도의 비율은 약 38%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매우 만족의 경우에는 그 이유로서, 농업경영에 도움이 되어서, 농사에 관한 체험이나 정보 습득, 협동·봉사하며 체험으로 배울 수 있기 때문, 인적 교류 등을 들고 있다.

만족의 경우에는 그 이유로서, 자율적으로 참가하지 않기 때문에 수업 분위기는 어수선하지만 도움이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정보 교환, 인적 교류, 영농에 도움 등을 들고 있다. 보통의 경우에는 그 이유로서, 영농기술과 전공교육이 거의 없기 때문, 열의가 별로 없음,

나름대로 교육적인 측면은 있으나 형식적인 경우가 많음, 영농 교육에 있어 4-H회원들의 의식 변화가 필요, 만족하는 부분 보다는 미흡한 점이 더 많음 등을 들고 있다.

불만족의 경우에는, 영농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다.

매우 불만족의 경우에는, 특별한 교육 없이 교육내용들이 반복되고, 활동이 부진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고 있다.

〈표 9〉 영농 4-H 교육 및 활동에 대한 평가

(단위 : 명, %)

구 분	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응답수 (비중)	26 (100.0)	6 (23.1)	4 (15.4)	11 (42.3)	4 (15.4)	1 (3.8)

주 : 무응답 1농가

3. 4-H 조직의 구성 및 성격

소속 영농 4-H회의 성격은 규정에 의거한 협동조직이라는 응답이 16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전체 응답의 절반 이상이 자율적 개별조직과 작목반에 속해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자율적 개별조직이나 작목반의 경우 소규모로 규정 없이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단체이기 때문에 조직의 목적을 달성해 나가는데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문제점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조직적 규모화를 달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과거의 작목반 조직으로서는 어려움이 많을 뿐만 아니라, 규정에 의거한 느슨한 자율적 조직으로서는 현재와 같은 소비자 지향적 마케팅 구조 하에서 조직의 질적 발전을 추구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표 10〉 소속 영농4-H회의 성격 및 가입자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자율적 개별조직	작 목 반	규정에 의거한 협동조직
5명 미만			
5~10명	3	1	2
10~20명	2	1	3
20~30명	4	1	1
30~40명	1		1

구 분	자율적 개별조직	작 목 반	규정에 의거한 협동조직
40~50명	2		2
50명 이상	3		7
계	15	3	16

주 : 1) 복수응답, 2) 무응답 2농가

그러나 자율적 개별조직이든 작목반이든, 또는 규정에 의거한 협동조직이 든 간에 50명 이상의 회원규모를 가진 조직에 소속되어 있다는 응답의 경우는 10건에 불과해 전체적으로 조직의 규모화를 추구할 필요성과 당위성은 공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작목반 영농 4H회의 경우에도 인적 구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100% 영농회원으로 구성된 작목반 조직은 전무하며 일부가 4H 회원(11.1%)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만 나타나고 있다.

결국 영농 4H 회원 또는 4H 조직 단독으로 문제해결에 접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 진다. 오히려 과거 70년대 영농 4H 회원의 활동과 같이 조직주체는 다양한 다수의 농민이 되고, 이러한 조직의 활동주체로서 또는 활동주체의 양성기관으로서 4H 조직 및 회원의 활동이 중심으로 되는 것이 보다 현실지향적인 영농 4H회의 활성화 방법이 될 것이다.

<표 11> 작목반 영농 4H회의 인적 구성

(단위 : 명, %)

구 분	소계	100% 영농 4H 회원으로 구성	일부가 4H 회원인 경우		
			5명 미만	5~10명	10~20명
응답수 (비중)	3 (11.1)	-	1 (3.7)	1 (3.7)	1 (3.7)

4. 영농 및 교육활동 내용

영농 4H회의 가장 왕성한 활동으로서는, 「야영대회, 청소년의 달 행사 등 교육행사」가 전체의 64.9%, 「봉사활동」과 「학습포 운영 등 과제활동」이 전체의 13.5%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영농 4H회의 활동이 여전히 전통적인 영농 4H회의 교육과 활동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영농 4H 회원들이 영농 4H 교육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 또한 전통적인 교육의 의식구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표 13>. 리더쉽과 친교활동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고,

영농기술의 습득, 해외연수 등 다양한 기회, 유통 및 마케팅 교육 등은 모두 합해도 약 33% 정도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는 영농 4-H 회원에 대한 교육 내용이 전통적인 방식과 내용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는데 가장 큰 원인이 있기도 하지만 영농 4-H 교육에 임하는 회원들의 사고도 전통적인 방식과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최근 들어 교육에 대한 회원들의 의식과 태도가 점차 변하여 가고 있다는 것을 <표 17>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12〉 소속 영농 4-H회의 가장 왕성한 활동

(단위 : 명, %)

구 분	계	야영대회, 청소년의 달 행사 등 교육행사	봉사활동	학습포 운영 등 과제활동	문화탐방
응답수 (비중)	37 (100.0)	24 (64.9)	5 (13.5)	5 (13.5)	3 (8.1)

주 : 복수응답

〈표 13〉 영농 4-H활동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

(단위 : 명, %)

구 분	계	영농기술의 습득	리더쉽과 친교활동	해외연수 등 다양한 기회	병역특례 혜택	유통과 마케팅 교육	인성교육 및 사회경험
응답수 (비중)	42 (100.0)	5 (11.9)	25 (59.5)	6 (14.3)	2 (4.8)	3 (7.1)	1 (2.4)

주 : 복수응답

이에 비해 영농 4-H 회원으로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전문지식으로서는 「유통 및 마케팅 교육」이 27.8%, 「공동조직경영」, 「컴퓨터/정보기술」, 「농업경영기술」이 각각 19.4%로 나타나고 있어, 회원들의 교육과 활동내용이 과거의 전형적 활동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응답 결과는 영농 4-H 교육에 대한 회원들의 의식과 태도가 점차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전통적인 4H 교육 및 활동영역은 지역발전의 리더육성과 영농후계자의 육성이라는 측면에서 유지하되, 변화하는 현실과 회원들의 의식변화를 고려한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 및 활동영역을 대폭수정,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영농 4-H 회원들을 담당하고 지도하는 기관으로서 농촌지도기관과의 유대관계에 대한 설문에서는 「좋다」와 「매우 좋다」가 각각 51.9%와 22.2%로 전체 응답자의 약 74%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4H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지도기관의 역할과 지도사의 전문성 향상은 매우 중요한 인자로 평가된다.

〈표 14〉 영농 4-H 회원으로서 가장 필요한 전문지식

(단위 : 명, %)

구 분	계	컴퓨터 및 정보기술	농업경영	작목별 재배 및 사육기술	공동조직 운영	유통 및 마케팅 교육
응답수 (비중)	36 (100.0)	7 (19.4)	7 (19.4)	5 (14.0)	7 (19.4)	10 (27.8)

주 : 복수응답

〈표 15〉 영농 4-H 회원과 농촌지도기관과의 유대관계

(단위 : 명, %)

구 분	계	매우 좋음	좋 음	보 통	좋지 않음	매우 좋지 않음
응답수 (비중)	27 (100.0)	6 (22.2)	14 (51.9)	3 (11.1)	4 (14.8)	-

5. 영농활동의 지속성

농업 및 농촌의 미래에 대한 평가는, 「암울한 편이나 성공가능성은 있다」가 전체의 77.8%로 나타나고 있고, 암울한 편이나 성공가능성은 있다가 14.8%로 나타나 전체의 92.6%가 현실의 농업경영환경은 매우 어렵지만 긍정적 전망과 위기극복의지를 보이고 있어 영농 4H 회원의 심리적 의욕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표 16〉 농업 및 농촌의 미래에 대한 전망

(단위 : 명, %)

구 분	계	농업의 미래가 매우 암울하고 성공하기 힘들	암울한 편이나 성공 가능성은 있음	반드시 성공함	모르겠음
응답수 (비중)	27 (100.0)	1 (3.7)	21 (77.8)	4 (14.8)	1 (3.7)

이에 비해 한국농업의 미래가 매우 암울하고 성공하기 힘들다는 부정적인 견해는 3.7% 수준에 그치고 있다.

영농 4H 회원으로서 활동의 지속 여부에 대해서는 전체의 85.2%가 계속 활동할 계획으로 의사표시를 하고 있어 <표 20>에서 나타나고 있는 농업 및 농촌의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와 더불어 영농 4H 활동에 대한 집념과 확고한 의지를 잘 나타내고 있다. 영농활동의 지속성 여부에 관해 계속 활동할 의향이 있는 회원들이 들고 있는 이유로서는,

- 대학생이 되면 보다 많은 관심과 적극성을 가지고 활동하고 싶기 때문

- 4H 활동은 4H 이념으로 활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도 활동을 계속 할 수 있기 때문
- 현재의 활동이 재미있고 배울 점이 많기 때문
- 전국적인 조직으로 많은 회원들을 만나고 친교 할 수 있기 때문
- 다양한 경험과 친교활동
- 친교와 정보습득이 용이
- 농촌 젊은이로서의 책임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
- 조직생활을 배울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
- 농업관련기관과의 유대 관계
- 하고 싶은 일이고 즐거움이 있기 때문
- 도움을 받았기 때문
- 사회적 친목과 영농기술 교류
- 후배양성을 위해
- 농업이 천직이기 때문
- 영농활동에 도움이 되기 때문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7〉 영농 4-H 회원으로서 활동의 지속성 여부

(단위 : 명, %)

구 분	계	활동할 계획임	그만둘 생각임	잘 모르겠음
응답수 (비중)	27 (100.0)	23 (85.2)	2 (7.4)	2 (7.4)

〈표 18〉 영농 4-H회의 발전과 활성화 방안

(단위 : 명, %)

구 분	계	사회·경제적 변화에 적응 가능한 기업경영적 비즈니스 요구	잠재된 경영능력을 활성화할 수 있는 협동조직경영을 최적으로 도출	4-H 이념강화로 농가경영 의식고취	농업조직의 중추적 영농조직으로 집중 지원·육성	누구나 참여 가능한 산업 4-H로 변경
응답수 (비중)	45 (100.0)	15 (33.3)	8 (17.8)	9 (20.0)	12 (26.7)	1 (2.2)

주 : 1) 복수응답, 2) 무응답 1농가

이에 비해 활동을 중단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회원들이 들고 있는 이유를 보면, 4H회는 별로 역할과 능력이 없는 조직이기 때문이며, 현재 4H 조직 활동에 의미가 없어 존재 이

유를 상실했기 때문 등이다.

영농 4H회의 발전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사회·경제적 변화에 신속히 적용할 수 있는 기업경영적 비즈니스 연구」가 33.3%, 「향후 농업조직의 중추적 영농조직으로 집중 지원·육성」이 26.7%, 「잠재되어 있는 경영능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공동조직경영의 최적 도출」이 17.8%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4H 이념을 더욱 강화하여 농가 경영의식 고취」라는 응답은 20.0%에 그치고 있어, 영농 4H 회원들이 영농조직화 및 기업경영적 마케팅 전략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나타내고 있다.

IV. 영농 4H회의 활성화 방안

1. 영농 4H회의 새로운 역할 변화의 방향

영농 4H회의 새로운 역할 변화의 방향을 보면, 선진 친환경농업인 및 지역 지도자의 양성, 각종 생산자 조직의 전문경영자 양성, 농산물 유통 및 마케팅의 전문가 육성, 시장경제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기업경영자 육성, 시장경쟁력을 가진 전문영농후계인력 양성으로 정립된다.

2. 영농 4H 협동조직 운영의 목표와 당위성

영농 4H 협동조직의 운영 목표는 다음과 같이 정립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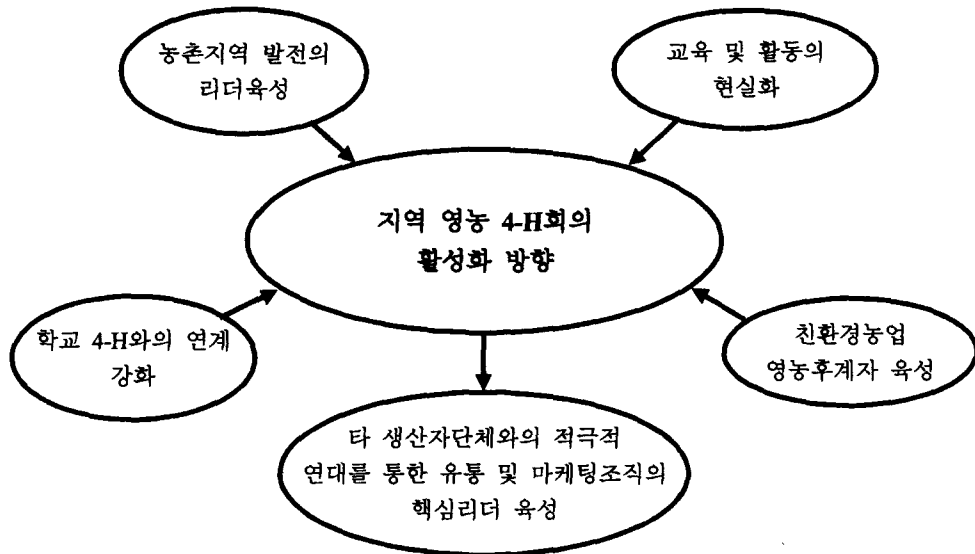
- 청년 영농인의 조직화를 통한 영농후계자 및 농촌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주체로 육성
- 농업위기의 심화라는 현실적인 조건하에서 시장경쟁력의 강화와 이를 통한 농가소득을 위한 산지 조직화와 공동사업의 전문경영인으로 육성
-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농촌지역개발 및 경제성장의 중심조직으로 육성이다.

현실의 농업위기와 농촌해체라는 위기상황 속에서 향후 농업·농촌을 주도해 나갈 영농후계자의 양적·질적 감소현상을 극복하고, 농촌 내에 농업조직을 이끌고 나갈 젊은 영농인의 육성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며, 특히 영농 전문화와 조직화를 위해서는 영농4H조직의 활성화는 필수적 과제이다.

영농 4H회의 협동조직 운영은 다음과 같은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

- 향후 농가의 경영수행능력과 경영구성요소는 다른 생산요소에 비하여 점차 큰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농가는 경영조직과 경영구성에서의 유연성이 더욱더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한 전제조건은 방법론적 기술진보와 적합한 경영구성을 최적으로 도출하여 잠재되어 있는 경영능력을 활성화하는 것이며, 이의 최상의 목표는 개별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소득안정과 사회적·정신적 안정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림 1〉 지역단위 영농 4-H회의 활성화 방향

- 특히 전략적 파트너형태를 가진 협동조직은 자율적이고 효율적이며 다양한 적응력과 유형개발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농가경영의 정책적 수단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는 개별농가들이 변화하는 국민경제적, 개별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기술적, 법적, 제도적 조건에 대하여 유연성을 가지고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따라서 수평적 결합 즉, 동일 생산농가 간 협동과 수직적 결합인 농가와 전·후방시장 파트너 간의 협동조직은 시장경제와의 결합을 촉진하고 기업적 경영 조직운영이 가능한 21세기 농업경영의 핵심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영농4-H회의 협동조직운영의 의미를 살펴보면,

- 영농의 기업적 경영전략수립이 가능
- 농산물 생산 및 요소투하의 경제적·기술적 환경변화에 적응이 용이하며, 농가경영의 합리화가 가능
- 농가소득안정을 위한 선택적 발전가능성 제공
- 급속한 농업구조변화에 용이하게 적응(안정적인 세대교체)
- 영농합리화와 요소투하의 최적화 추구가 용이

- 개별농가의 한계극복과 의사결정의 관행적 경직성을 완화
- 지역별 상이한 구조적·인적 차별성을 파악 분석할 수 있는 기회제공
- 새로운 경영 및 조직운영, 전문성 결핍에 대한 불안을 해소
- 젊고 책임감을 가지며 개방적이고 실천적인 후계자 육성가능
- 농업정보에 대한 욕구충족과 전문컨설팅 수요 욕구에 부응
- 경제·사회적 변화에 대응한 조직적 기술진보의 효과(규모경제, 구조개선 등)
- 소규모 영농활동의 장애요인 극복 등이 가능하다.

시장개방화 현실 하에서 농업과 농민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조직화,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방안이 현실적인 농업문제 해결의 가장 최우선적인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영농 4H 활동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활동과 이를 통한 영농 4H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회원들의 의식변화와 직접적인 자구노력 및 협동조직 사업 참여가 전제되어야 하며, 그 성과를 회원들이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영농 4H 조직은 젊은 영농 후계자들을 중심으로 구성, 향후 지역영농의 핵심 주체로서 역할이 가능한 연령대의 회원들로 구성된 조직이기 때문에 친환경농업후계자 육성 및 산지 협동조직화 사업의 선도적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수행해 낼 수 있는 최상의 조직으로 평가되고 있다.

3. 영농 4-H 조직운영의 개선 및 활성화 방안

영농 4H회는 기술센터나 그 외의 기관에서도 소외되어 있는 실정이다. 회원 및 소득의 감소 등 많은 영향으로 인해 젊은 인제가 유출되는 실정이다. 회원이 없는 4H회는 더 이상 활동을 유지할 수 없기에 많은 인적 자원 확보가 필요하다. 농업기술센터의 담당이나 계장들은 주어진 행사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4H 회원들의 경우에는 자발적이지 않은 실정이다. 회원들은 담당자가 요구하니까 해야 한다는 수동적 태도로 변하고 있고, 현재에는 임원단과 담당자와의 관계가 소원 해지고 있다. 회원 양성을 하고 싶지만 새로운 변화가 없다면 자주적인 4H회가 회원부족과 무관심 속에서 운영자체가 유명무실해지는 현상까지 나타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한 실정이다. 또한 영농 4H회가 농업기술센터의 의존성이 높고, 4H 조직 내에서도 불신이 나타나고 있으며 조직운영이 파행으로 나타날 위험성이 크다. 따라서 농업기술센터 및 4H 후원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가 절실히 요구된다.

현재 4H임원들이나 그 외 회원들은 리더쉽이 빈약하다고 느끼고 있다. 영농 4H회는 농업·농촌을 위한 단체로 인식되고 있으나 4H 조직이 활동과 역할에 있어서 회원들의 관심과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조직 활동에서는 회원들의 관심이 유발되어야 하며 동기가

부여 될 경우 적극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회원들의 욕구와 성취감이 부여되고 충족될 수 있는 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

이러한 현실에서 영농 4-H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와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영농 4-H 조직운영의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영농 4-H회가 최첨단 인터넷 컴퓨터를 지원·활용함으로써 전자상거래 및 인터넷 홍보를 통한 자가생산·자가판매를 할 수 있는 생산, 유통 및 가공, 소비의 연계시스템을 조직·구축하여 판로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수입개방에 대응할 수 있는 영농조직운영구조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4-H 회원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예를 보면, 먼저 학생 4-H회를 졸업한 후 회원의 관심을 유발할 수 있도록 카페에 '○○시 4-H'란 동호회 형식의 사이트를 운영한 바, 첫 정기모임 이후 4-H에 대해 흥미를 가지고 있는 약 30여명 정도의 중·고등학생 및 영농 4-H회원들이 참여하게 되었으며, 현재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은 80여 명으로 증가하게 되어 4-H회 임원들이 회원들과의 연계 가능성과 후배양성을 위한 희망을 갖는 계기가 되고 있다.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은 물론, 4-H회의 새로운 실체적 역할정립을 수립하여 영농 4-H회가 무엇을 하는 단체인가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지역 특성을 살린 홍보활동을 통해 지역특화를 추구하며 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하여 잊혀져가는 4-H 단체의 특성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4-H 이미지 개선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이를 위해서는 야생화 생태지구조성, 유기농업 및 녹색체험마을 조성 등 녹색환경운동의 일환으로 그린영농 4-H 활동사업 프로그램개발 등이 필요하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4-H 운영자금을 4-H 운영위원들에게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과거의 4-H회는 열정과 패기를 가진 영농회원들로 구성, 활동하여 왔으나 현재는 크게 위축되고 소외되어 있다. 따라서 학생 4-H 회원들을 집중 교육·육성하고, 영농 4-H와 연계하여 4-H회 활동의 지속성과 잠재적 발전가능성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기술과 교육 및 지원정책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의 4-H 회원 중 영농회원이 극히 적은 이유는 산업기능요원들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영농 4-H회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조건에서 유대관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영농 4-H에서는 전문영농종사자들과의 기술교류와 협력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전국대회나 야영 등 형식에만 급급한 사업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영농종사자들의 해외연수 등을 통해 보다 폭 넓은 견문과 기술습득의 기회확대가 필요하다.

현재 4-H 조직은 4-H라는 명분만을 유지하고 회식 등 형식적 사업관계 유지에 예산지출을 하고 있어 행정 및 지도담당 관계자들의 의식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젊은 인력이 극소하며 서로 독자적 이익만을 추구하고자 하기 때문에 영농 4-H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위「OB(선배)4-H」와 「4-H 후원회」를 연계 운영해야 할 것이다.

학생 4H회의 중점육성을 추구함으로써 영농 4H회의 상대적 지원감소에 대한 불만이 내재되어 있다. 4H회의 중심은 한국 4H 연합회로 인식하고 있으며 영농 4H회가 조직의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이다.

농업의 위축에 따라 영농 4H활동이 함께 소외되어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영농 4H가 전문화하여 집중 육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후원회에서 가지고 있는 노하우, 젊은 패기와 기동력을 결합해 새로운 기업 경영적 활동단체로 환골탈태해야 할 것이다. 영농의 기본목적은 소득증가이기 때문에 소득향상과 연계되지 않는 사업활동은 동기를 유발하지 못할 것이며 활동의 지속성을 추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영농 4H회는 농촌의 미래이기 때문에 영농 4H 회원들이 지원과 후원없이 자생력을 가지는 영농조직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선결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에 대한 의존성에서 탈피하고 상호 협력관계로 유지 발전해야 할 것이다.

각 시·군별 지역특성에 적합한 작물을 중심으로 농업기관에서 기술교육 및 중점 지원이 필요하며 다른 시·군과의 다양한 기술교류와 판매 및 마케팅 전략운영을 위해 지역농업 운영기술의 교환과 대외협력사업을 주도할 도 단위 지역농업협력위원회의 운영이 필요하다.

현재 영농 4H회의 활동과 주도적 연령이 제한적이고 지도자의 일방적인 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교육내용과 방법으로는 교육의 효율성과 현실성이 없다. 지도자의 보편적 교육내용 이외에 4H회 선배(OB)와 후배(YB)간의 경험적·체험적 교육내용을 포함한 자발적인 교육활동과 내용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농산물 생산기술 이외에 판매 전략과 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가공 및 수출 촉진기술 및 협력방안에 대한 지도교육이 절실히 요구된다. 또한 영농 4H회원들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으로서 각 시·군 단위나, 도·광역시 단위로 컴퓨터 조작능력과 인터넷 활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첨단영농의식을 고취시키고 소규모 개별농가의 한계성을 극복할 수 있는 조직적 기술진보의 효과, 농업산업의 구조적 문제의 극복가능성 등에 대한 기초 교육강화와 체험적 선진학습프로그램개발은 영농조직 활성화의 필수적 조건이 되고 있다. 영농 4H 과제자금에 대한 투명한 운영과 4H 회원들에 대한 지출내역의 공개는 회원들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필수적 전제조건이 되고 있다.

회원들의 기본적인 4H 정신 및 자질문제 개선, 지도기관의 자기방어적 행정탈피, 도시민들의 잘못된 농촌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영농 회원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의 제공 등이 필요하다. 영농 4H의 입지가 위축되어 있어 자부심과 의욕을 가질 수 있는 활동이 결여되어 있으며 특히 생산과 판매의 위험성을 방지할 수 있는 조직 활동, 영농비전과 장기적 사업의 안정성 등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사업계획 수립행이 전제 되지 않기 때문에 회원은 조직활동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

농촌청소년 회원 증가를 위한 시범자금 확대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로 흥미와 관심유발이 필요하다. 영농 4H 회원 시범사업비 감소와 시범사업교육 대상인원 감소, 특히 컴퓨터 지원 사업비의 감소, 해외연수지원 감소 등으로 영농 4H 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다. 영농후계인력육성을 위한 지원감소는 향후 농업산업의 사양화가 예고되기 때문에 전폭적인 인력육성 지원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현행 500만원인 영농 4H 회원의 과제활동자금은 대폭 상향조정하여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농촌청소년의 인적자원부족 및 타 지역 인문고 입학과 대학진학 등으로 농촌지역의 회원확보가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영농 4H 회원도 농민 후계자 가입으로 활동이 저조한 실정이다. 따라서 영농 4H 과제활동 지원 사업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시범영농사업으로 확대해 나가거나 농촌정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읍자의 지원과 같은 영농회원에 대한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학교 4H회의 지도단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4H 이념 확산과 향후의 영농 4H회 활성화 및 인력확보를 위한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지원 사업을 확대하되, 개인별 지원은 자금수령 후 영농 4H회 활동에 참석하지 않는 회원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작목별 영농 4H 조직화에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회원들의 연령제한을 만 29세에서 만 35세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 대학 4년과 군복부 3년이 지나면 영농 4H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5~7년 정도로 짧기 때문에 영농 4H 회원의 나이를 영농정책의지가 강한 만 19세부터 35세까지로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는 바람직할 것이다. 여성회원 확보방안을 위하여 부부가 함께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영농 4H회가 발전하려면 4H 지도자협의회와 영농 4H회가 통합되어야 한다. 4H 연합회(영농 4H)에서는 30세를 넘기면 회원탈퇴를 해야 하므로 지속적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4H 회원 가입 연령을 9~35세로 1차적으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농촌청소년의 결혼문제는 사회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최우선 과제이다.

영농회원의 부족으로 각종 교육행사 시 학생회원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학생회원의 대부분은 졸업 후 4H 활동이 저조한 실정이다. 교육행사 위주의 활동과 인원 동원적 성격의 행사, 학생 4H 지도차원의 행사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 학생 4H 회원의 경우에는 농심함양에 주력하고, 선진영농 및 국제교류행사를 확대·추진하여 전 회원이 참석하는 해외연수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또한 영농 4H 회원의 단계적인 지원강화로 친환경 영농정착 전문경영인으로 육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

현재 영농 4H회에서 실제로 활동하는 수는 소수이며 이중 영농 4H 회원은 1/3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군복무를 대신하는 산업기능요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렇게 영농 4H 회원이 감소하고 있는 이유는 농촌에 주 소득원의 결핍, 영농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현재는 학교 4H회를 육성 하여 4H회를 유지해 나가는 실정이나 향후 4H회의 나아갈 방향

은 영농 4H 회원확보 이외 회원의 정예화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소수의 정예회원으로 양성, 영농 4H회의 리더로 연계 육성시키는 것이 4H를 활성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사항일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향후에는 영농 4H회와 학생 4H회의 질적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다각적인 협력 및 연계 발전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영농 4H 회원의 70% 정도가 산업기능요원이어서 4H 활동에 대한 의지가 빈약하며, 소수 인원으로 자체활동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4H 관련(주로 학생 4H 활동) 행사준비 및 보조활동이 거의 대부분이다. 지금까지 영농 4H회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후계농업인, 산업기능 요원제도가 가장 큰 역할을 하였으나, 농업계 학교 출신자 위주로 배정하는 제약 조건으로 인하여 해당자가 없는 지역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영농 4H의 활성화 방안으로서 후계농업인, 산업기능요원 선발 시 농업계 학교출신자 우대제도에서 탈피하여 선발대상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즉, 산업기능요원이라는 병역특례제도를 발전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영농 4H회에 대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다양한 영농 4H 회원의 교육기회 제공, 자금보조 등 영농정착을 위한 획기적인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산업기능요원제도와 더불어 복무만료 후 농촌 정착 시 1~2억원의 무이자 지원으로 농촌정착을 유도하고 있으나 농고생의 경우에도 졸업 후 군 면제를 통해 영농 4H회로의 가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산업기능요원들이 4H 회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산업기능요원 선발조건으로 영농 4H조직의 구성원으로서 활동은 물론, 영농 4H 조직 운영사업 활동원으로서 역할부여 및 전문교육 의무화 조건 특히, 유기농업기술 전문인력 양성방안을 도입 할 필요가 있으며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농업정책의 일관성이 요구된다. 왜냐하면 산업기능요원 제대 후 영농 4H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경제활동의 주체로 만들기 위해서는 영농활동만을 고수하는 것보다는 농업경제활동을 통하여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는 화원, 정육점, 과일상점, 토속음식점 운영, 영농 PC방 운영 등과 같은 2차 및 3차적 소득원의 공동운영 가능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각 시·군 공히 4H 연합회가 자생력을 잃어 농촌 지도기관에 의해 수동적인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행정통계와 실제와는 매우 다른 현실을 회원 및 지도자가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활성화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직을 광역화하거나 스스로 참여할 수 있게끔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서류상 등록되어 있는 조직 및 인원에 연연하지 말고 실제 활동하는 회원들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투자와 관리·육성이 필요하다. 또한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게 하여 급변하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요망된다.

4H회가 60~80년대 녹색혁명의 선두에서 농업·농촌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다. 오늘날의 현실에서 성과를 위한 교육 및 행사인원 부풀리기는 지양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출생률이

낮다고 해서 인구 정책을 포기할 수 없듯이 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후계농업인 육성을 포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소수인원에 불과하지만 우리나라 농업과 식량안보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정예인력과 조직으로 역할과 기능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4-H회의 설립초기인 60~70년대에는 교육기회가 주어지지 못하고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인해 사회교육으로 자리 잡아 4-H회가 활성화되고 참여 회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이루어졌으나, 학교교육 기회가 풍부한 현실에서는 4-H회 육성자체가 어렵고 활동 또한 미온적이므로 명맥만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4-H회는 영농 4-H회를 중심으로 육성되어지는 것이 당연하며, 행사나 교육보다는 자립기반을 갖추도록 자본과 시설 등을 장기 저리로 지원하여 영농안정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영농 4-H회라 하여 영농관련 프로그램으로만 활동하는 것 보다는 시대의 변화에 따른 농촌청소년들의 관심과 이해, 취향을 고려하여 취미·교양 및 여가활용법에 대한 프로그램 등이 함께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도기관의 행사성 동원인력이 아닌 자체활동역량을 강화하고 유도해야 하며, 학생 4-H 회원의 자연스러운 영농회원으로의 연계방안이 반드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미래지향적인 농촌활성화 대책미흡으로 영농 4-H 회원의 활동저하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꿈과 희망이 있는 농촌으로 만들기 위한 정부차원의 정책수립과 이를 실천할 지역의 전문 영농인 양성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도시화로 인해 영농 4-H회의 운영이 잘 안 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대학이나 특수산업 대학교 4-H회로의 육성이 필요하다. 영농교육도 생산기술 중심에서 판매 및 유통 중심으로 전환하고, 선진친환경 농업지역을 탐방할 수 있는 기회제공으로 회원사기의욕의 향상과 전문성 제고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한국농업전문학교 재학생 전원을 영농 4-H 회원으로 편입, 학사과정에 4-H 관련 교양과목 신설 등 전문영농 4-H 회원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영농 4-H 조직관리를 농촌지도기관에서 4-H 조직 연합회가 직접 관리하여 자발적 영농 조직협력단체로 육성함으로써 농업·농촌이라는 기존의 이미지와 활동의 한계를 탈피하고 도시 청소년들의 농업·농촌과의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단체로 변화할 필요성이 있다.

영농 4-H 회원들이 개별농가의 한계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소규모 분산적 생산 및 판매구조로 인하여 생산 및 판매의 위협소지가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및 공공기관에 대한 의존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영농 4-H 활동을 통하여 경제적, 정신적 자부심을 갖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한 영농 4-H 조직인원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시·군 단위보다는 광역화하여 교육 및 정보교환 등의 활동을 조직적으로 유도하여 농촌인력의 후계세대 육성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조직의 광역화가 요구된다.

<표 19> 영농 4-H 조직운영의 구체적 개선방안

구 분	현 행	개 선 방 안
전자상거래 및 인터넷 이용	일부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터넷 홍보 및 전자상거래를 통한 판매 시스템 구축 사업 지원
인적자원 확보	산업기능요원 중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수 정예화 된 실질 영농 4-H 회원 중심+산업기능요원 및 기타 산업기능요원제도 혜택 범위 확대 강화 농림부 등 행정기관, 농업전문학교 및 지역의 농과대학 등과 연계 강화 다양한 인센티브(예 : 영농정착자금지원 등)의 제공
후계농업인, 산업기능요원 제도	농업계학교 출신자 중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질적 영농정착 대상자 중심으로 확대 실시 농고, 농업전문학교학생들을 이 제도를 통해 실질적 영농자로 유도 국가기술자격을 갖춘 유기농업기사로 육성
사업 및 교육프로그램	전통적인 3대 행사 및 교육 프로그램 중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신교육 강화(수동적 자세에서 적극적 자세로의 전환, 기본이념 무장, 자질문제 개선 등) 욕구와 성취감 부여 및 충족이 가능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역특성을 살린 지역의 독자적인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취미 교양 및 여가 활용교육
	전통적 4H 교육은 학생 4H 위주로 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농회원을 위한 교육 개발 필요 실기 및 체험학습 위주의 과제교육이 필요 판매 및 유통 중심교육으로 전환 진로지도교육 학생 4H 교육프로그램 중 영농실천프로그램 등 운영 전문영농종사자들과의 기술교류 강화 선도농가 방문, 해외연수 등을 통한 전문과 기술 습득의 기회 확대 등
조직간 연계	약한 연계, 교류 부족, 조직분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 4H와 영농 4H의 연계 강화 OB 4H와 4H 후원회 연계 운영 및 강화 타생산자단체와의 연계 프로그램(예 : 농협연합마케팅 사업의 핵심리더 육성 및 제공) 4H 지도자협의회와 영농 4H회의 통합
회원간 교류	행사 중심의 교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터넷사이트를 통한 회원 간 교류 확대
영농안정기반의 확충	과제활동자금 (50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제활동자금 지원금액의 확대

구 분	현 행	개 선 방 안
영농안정기반의 확충	시범자금 감소	• 시범자금 지원확대 : 컴퓨터지원사업비, 해외연수지원
	기타 자금의 개인별 지급	• 개인보다는 작목별 영농 4-H회에 집중 지원
대상연령조정	19~29세	• 19~35세로 상향 조정하여 활동기간 연장
2, 3차 소득원 개발 사업	전 무	• 공동운영사업(예 : 화원, 정육점, 과일상점, 토속음식 점 운영, 영농 PC방 운영, 주말농장 운영 등) • 희망사업별 지원 프로그램 개발
4-H 조직의 광역화	면단위까지 조직	• 조직 단계 축소(시·군·도·본부)
4-H 운영자금 관리	농업기술센터관리	• 4-H 운영위원회에 위임하고, 농업기술센터는 감독기능 강화 • 영농 4-H 자금을 대한 투명한 운영과 4-H 회원들에 대한 지출내역의 공개
신도시지역의 경우	영농 4-H의 급격한 축소	• 대학 4-H, 특수산업대학 4-H 등으로의 육성이 필요
조직의 활성화	표준모델 없음	• 표준모델의 개발
	품목별 조직은 매우 소수	• 품목별 4-H의 활성화(공동선별, 공동출하, 공동정산 등 공동사업의 활성화)
홍보활성화	거의 없음	• 4-H 이미지 개선, 인터넷을 이용한 홍보 활동 강화

회원 수의 무분별한 확대 보다는 실제 회원의 관리·지도가 필요하다. 농업의 소중함에 대해 깨우침을 주고 있는 학교 4-H회의 육성도 중요하지만 4-H 정신과 첨단 농산업의 중추적이고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영농 4-H회의 중요성을 인식시킬 수 있는 교육 및 지도사업 뿐만 아니라 과제활동, 진로지도교육 등의 종합적인 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

인적자원의 확보를 위해서는 정신교육이나 행사위주의 4-H 지도프로그램보다는 영농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영농 4-H 회원의 자긍심과 단합을 위한 교육행사가 필요하다. 현재 중앙이나 도 단위 야영교육 및 경진 대회는 학생위주로 편성되어 형식적인 행사에 불과하며 영농 4-H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실정이다. 따라서 순수 영농회원의 정보교류와 결속을 다질 수 있는 교육행사가 필요하다.

영농 4-H회의 조직화는 행정적 지원에 의한 인위적 조직화보다는 현실적이고 자율적이며 효과적인 운영방안으로 유도해야 할 것이다. 영농 4-H회를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자주적인 협동조직단체로 활동할 수 있도록 표준 모델을 개발 육성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영농 4H 회원의 조직화와 사기진작 및 과제활동을 위해 최소한 지방 예산수립이 요구되며 국비예산지원으로 실기 및 체험학습위주의 과제교육이 요구된다. 영농 4H 조직 단위는 읍·면 단위에서 탈피하여 시·군 단위 작목형태로 조직·육성함이 바람직하며 협동조직 교육 강화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영농 4H 조직운영에 대한 프로그램이 농업구조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현실화 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는 정보화, 기술화, 조직화, 지역화 시대로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특히 미래 지향적인 대체 작목의 적극적인 발굴과 이에 대한 기술교육이 부가되어 야할 것이다. 또한 선진 친환경 영농기술 습득활동 프로그램과 마케팅 및 협동조직 운영을 통한 부가가치향상 기술교육 프로그램 도입 등은 영농회원의 높은 관심을 유발시킬 수 있을 것이다.

영농 4H회의 조직화를 통하여 생산활동 이외의 다양한 서비스산업 활동을 수립하여 회원의 수요욕구를 충족하여야 할 것이며, 지역영농 부녀회 봉사활동을 추진하여 젊은 부녀회원들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봉사 씨클로 육성될 수 있도록 유도하며, 각종 4H회 관련 행사도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다양화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주말농장 등 청소년 및 자녀들에게 농심함양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우리 농촌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업 활동으로의 참여와 회원들의 사기진작을 유도하기 위하여 희망 사업별 지원프로그램이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영농 4H 회원이 대학에서 농학계열을 전공한 경우 기술교육보다는 농업 조직화, 전문인력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사회적인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시·군의 자체적인 육성은 소수인원과 학생 4H 육성의 보조적인 역할에 국한되고 있기 때문에 도 단위에서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한국 4H 본부와 시·군 4H 후원회와의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지역단위 영농조직의 정보 및 기술교육지원활동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농업인력 육성차원에서 영농 4H 회원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더불어 생산된 농산물을 농가공업 및 대형마트 등에 우선 납품될 수 있도록 영농협동조직 및 규모화를 통해 산지 차원의 근본적인 유통 및 마케팅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표 20〉 영농 4H회 조직 활성화 방안

구 분	활 성 화 방 안
1) 인적자원 확보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4H와 연계성 강화 • 지역단위 조직별 인터넷 4H 동호회 운영 및 홍보 • 4H 회원의 선배(OB)와 후배(YO)와의 협조체계 구축 • 영농후계인력 육성프로그램 개발 및 자금지원확대 • 영농 4H 과제활동 지원사업 강화 및 시범영농사업 확대

구 분	활 성 화 방 안
1) 인적자원 확보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4-H 지도단체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 • 회원의 연령제한을 만 35~40세로 단계적 상향조정 • 부부회원 활동보장 • 회원들의 욕구충족·성취감부여 가능한 사업프로그램개발 • 영농 4-H 회원을 최고 전문영농인으로 육성, CEO 자격 부여 • 산업기능요원 선발대상자 확대 및 복무 후 전문교육 의무화 • 대학/특수산업대학과 농업전문대 재학생 대상 4H회 조직 • 영농 4-H 조직을 시·군 단위 이상으로 광역화
2) 회원연령제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9세의 연령제한을 35세로 상향조정, 조직리더로 지원육성
3) 교육 및 활동프로그램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린영농 4-H 활동프로그램 개발 • 컴퓨터 조작능력 및 인터넷 활용교육프로그램 개발 • 마케팅 및 가공 수출촉진과 협력시스템 구축 • 국제교류행사 및 체험적 선진 학습프로그램 개발 • 학생 4-H와 연계 및 협력프로그램 개발 • 취미 교양 및 여가활동프로그램 개발 • 영농회원 정보교류 프로그램 개발 • 고 부가가치 친환경 전문기술교육프로그램 도입 • 영농 4-H회의 서비스산업 활동지원 프로그램 도입 • 희망사업별 지원 사업 도입 • 협동조직 교육 강화 프로그램 도입 • 영농 4-H 회원을 국가기술자격을 갖춘 유기농업기사로 육성
4) 영농 4-H회 조직운영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 유통 및 가공 소비연계시스템 구축 • 4-H 운영위원회에 의한 영농 4-H 자금관리 • 전문영농인과의 기술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 4-H 후원회와 공조체계 구축 • 기업 경영적 사업활동 체계 구축 • 자생력을 가진 영농조직기반 구축 및 강화 • 도 단위 지역영농협력위원회 운영 • 4-H 과제자금의 투명성 제고와 신뢰성 확보 • 회원의 정예화와 조직화 • 영농 4-H 협동조직을 통한 2차/3차 산업 소득원 공동운영 • 자주, 자립적 작목별 협동조직 운영 • 농업기술센터의 컨설팅 역할 강화
구 분	개 선 방 안
5) 자금지원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범영농협동조직 및 국가기술자격 우대 지원사업 도입 • 학생 4-H회와의 협력강화 지원사업 도입 • 영농조직과제활동자금의 단계적 지원기준 설정 • 개별지원 감축

구 분	개 선 방 안
5) 자금지원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목별 영농 4H 협동조직 설립 및 활동사업지원 확대 ▪ 협동조직경영개선자금지원 사업도입 ▪ 품질개선, 회원집약도, 공급규모화 등을 전제로 장기지원
6) 지도관리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H 담당지도사의 리더쉽 강화와 전문성 향상 ▪ 회원의 자발적인 교육활동과 내용개발 유도 ▪ 영농관련 마케팅기술 및 협력방안에 관한 지도교육 집중화 ▪ 개방된 사이버 컨설팅 운영 ▪ 지역·전국지도자 협력운영위원회/지도자 전문위원회 운영 ▪ 지역 및 조직특성에 적합한 지도사업 개발 ▪ 생산기술지도에서 판매·유통 중심의 지도사업으로 전환 ▪ 담당지도자의 사회적 지위 향상 ▪ 회원의 지도, 교육 및 경영사업 등 종합적 관리시스템 도입

농산물시장 개방화와 21세기 과학영농 실천을 위한 영농 4H 회원의 전문성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국가기술자격을 갖춘 유기농업기사(기능사, 산업기사)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유기농산물과 유기식품의 교역, 품질인증, 재배·생산·가공 기술지도 및 대 농업인 교육 등을 담당할 유기농업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함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의 일환으로 유기농업기사 자격의 구체적인 구조와 내용을 설정하고 영농 4H 회원을 대상으로 전문인력 양성과 파격적인 우대 지원사업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농촌진흥청의 4H회 육성 기본계획목표를 전문농업경영인 양성과 협동조직육성 사업지원으로 전환하여야 하며, 중점추진 사업으로서 영농 4H회 후계인력자원 확보와 국가기술자격 지원사업을 통하여 특수목적을 가진 농업조직기반을 구축하며, 전문영농협동조직화를 통하여 친환경농가의 시장경제활동의 한계성을 극복, 경쟁력을 강화하며, 이를 통한 시장경제에의 연계성 강화와 농업구조개선을 촉진하고, 소득창출의 기회를 확대하여 궁극적으로 농촌지역경제와 농업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농촌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V. 결 론

경제·사회적 발전이 농업 및 식품산업에도 깊은 구조적 변화를 가져왔으며 특히, 식품의 경우 급속하게 소비욕구가 성장함으로써 보충적 물적·서비스가 요구되어 왔다. 특히 소득증대와 산업화에 따라 고품질 안전농산물, 안전식품에 대한 수요자의 요구 증가로 유

기능산물의 생산량이 매년 30~40%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어 유기농산물 재배·생산·가공 기술지도 및 대 농업인 교육 담당 유기농업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농산물시장 개방화와 21세기 과학영농 실천을 위한 영농 4H 회원의 전문성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국가기술자격을 갖춘 유기농업기사(기능사, 산업기사)로 육성할 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유통기능이 발전하고 이를 점차 충족시켜가야 하는 당면된 과제를 가지고 있다. 예로, 수집, 선별, 등급화, 수송, 저장, 처리 및 가공, 포장, 분류, 광고 및 컨설팅 등의 기능적 수행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농업은 인적 생산적 구조결핍과 유통과정에서 계속 취약한 산업으로 잔존해야 하는가, 그리고 결국 순 원료생산자로서만 역할을 수행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 친환경농업 전문인력 양성과 농업의 조직화가 절실한 실정이다.

현실의 농업위기와 농촌해체라는 위기상황 속에서 향후 농업·농촌을 주도해 나갈 영농 후계자의 양적·질적 감소현상을 극복하고, 농촌 내에 친환경농업을 이끌고 나갈 젊은 영농인의 육성은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이러한 당면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고 있는 것은 농업조직화를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단체를 육성하는 것이며, 이의 가장 이상적인 대안으로서 영농 4H 조직이 제기된다.

그러나 오늘날 영농 4H회 조직은 양적 감소와 질적 저하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 이유는 농업환경변화에 대한 4H회의 역할변화 모색 부족, 회원의 활동이 친목과 교육 및 봉사 중심의 단순사업 진행, 영농 4H회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존 조직과의 연계성 미비 등으로 영농 4H회에 대한 관심 감소와 활동의 한계성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영농 4H 조직의 역할을 증대시키고 시장경제와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경쟁력을 가진 영농조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별회원의 경영능력과 성장잠재력을 활성화하고, 경제·사회적 변화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적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즉, 영농 4H회 조직의 중추적 활동을 통하여 회원의 자발적인 역할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조직기반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농업정책의 최상위 목표는 개별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소득안정과 사회적·정신적 안정을 보장하는 것이다. 특히 전략적 파트너형태를 가진 협동조직은 자율적이고 효율적이며 다양한 적응력과 유형개발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한 중요한 정책적 수단으로 대두 되고 있다. 이러한 조직기반을 구축하고 지역의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은 물론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유기농산물과 유기식품의 교역, 품질인증, 재배·생산·가공 기술지도 및 대 농업인 교육 등을 담당할 유기농업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영농 4H회원을 대상으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오늘날의 시장경제질서의 확립과 흐름이 협동조직의 본질과 특성에 일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장경제의 발전과 개선을 위해 협동조직은 경제활동을 통하여 이윤을

추구하고 있으며 시장시스템과 일치된 기능, 즉 경영의 자율성, 사유권, 조직구성원 육성을 위한 사업 활동뿐만 아니라 시장시스템의 뚜렷한 개선으로 경쟁력 강화, 구성원의 자율적인 경제활동 공간 확보, 다수 구성원들의 경제안정 등을 보장하고 있다.

협동조직이 새로운 경제 질서를 확립한다는 인식보다는 우리의 경제시스템에 포괄적으로 다양하게 결합된 실체로서의 협동조직을, 본질적으로 보충적이고 진보적인 실체로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논문접수일 : 2005. 1. 20. 최종논문접수일 : 2005. 3. 5.]

참 고 문 헌

1. 김준기. 2002. 한국 4H 본부와 지역본부의 역할정립, 4H세미나.
2. 농촌진흥청 · 한국 4H 본부. 2001. 「영농 4H 활동」.
3. _____. 2001. 「4H 자원지도자 활동자료집」.
4. 오해섭. 2002. 주5일제 확대에 따른 영농 4H회의 대응전략. 4H세미나.
5. _____. 2004. 미국의 농업인력육성 정책과 4H의 역할, 한국 4H 본부 홈페이지.
6. 유덕기 외. 2002. 「연합마케팅사업의 이론체계정립 및 해외선진사례 조사연구」, 동국대학교.
7. 유승오. 2003. 「전문농업인력 육성을 위한 영농 4H회 활성화 방안」.
8. 윤병두. 2002. 농업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영농 4H회 활성화 방안, 4H 세미나.
9. 이광호 외. 1999. 「청소년지도사 전문화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10. 이영래. 2002. 4H 활동 활성화와 지역운동과의 연계, 4H 세미나.
11. 정하성. 2002. 4H 지역본부 사업 강화 방안, 4H 세미나.
12. 정황근. 2002. 농업인력육성제도 및 정책, 4H 세미나.
13. 한국 4H 본부. 2002. 「2001년도 사업활동 종합보고서」.
14. 한국 4H 본부 홈페이지
15. 한국 4H 신문. 2003. 7. 15.
16. Dülfer, E. 1969. Organisation und Management im kooperativen Betriebsverbund, ZfgG.
17. Großkopf, W. 1978. Die Marktstruktur im Ernährungssektor unter besonderer Betrachtung der landwirtschaftlichen Marktstellung.
18. Link, H. 1995. Kooperationen in der landwirtschaftlichen Produktion, Stuttgart; Ulmer.
19. Seuster, H. 1974. Kooperative Organisationsstrukturen in der Landwirtschaft, Agrarwirtschaft.
20. Seuster, H. 1976. Landwirtschaftliche Kooperationen als Systeme, Bericht über Landw.